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4강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봉주 마라토너

“오랜 시간 목표를 이루는 원천은 지구력”

평발 등 악조건 불구 최고기록 보유
규칙·일지 작성 등 ‘습관의 힘’ 강조
롤모델·라이벌·스승 ‘페이스메이커’
“성공 원동력...결에 두고 이겨내길”

“타고난 조건과 능력이 좋으면 반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힘은 끝까지 버티는 ‘지구력’이라는 것을 마라톤을 통해 배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4강좌가 지난 12일 오후 광주 L7 총장 바이룻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봉주(55) 마라토너는 ‘인생은 마라톤이다’를 주제로 역경과 신체적 한계를 이겨내며 쌓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마라토너는 먼저 자신이 육상 선수로서 지냈던 ‘핸디캡’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초등학교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타 선수들과 달리 고등학교에서 돼서야 전문 육상 훈련을 받는 등 출발점이 늦었다”며 “평발로 인한 고통도 컸고, 타고난 속도 자체가 매우 느린 것도 약점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마라토너는 2000년 도쿄 국제마라톤 대회를 2시간7분20초 만에 완주해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남자 최고기록을 보유 중이다.

이에 대해 그는 “처음엔 뒤쳐져도 마지막에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일한 강점인 ‘지구력’을 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4강좌가 지난 12일 오후 광주 L7 총장 바이룻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봉주 마라토너는 ‘인생은 마라톤이다’를 주제로 한계를 이겨내며 쌓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희망의 메시지 등을 전했다.

이어 “오전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오후에는 그날 훈련을 일지에 기록하는 ‘나만의 규칙’을 매일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고난 조건과 능력이 좋으면 반짝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목표를 이루는 힘은 끝까지 버티는 지구력”이라고 역설했다.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와 함께 가는 동반자인 ‘페이스메이커’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마라토너는 그의 선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3명을 말하며 페이스메이커의 유형을 각각 ‘롤모델’, ‘라이벌’, ‘스승’으로 구분했다.

롤모델은 중학교 동창인 황영조 선수였다. 이마라토너는 “먼저 육상을 시작했기에 실력과 근성 모두 뛰어났던 황영조 선수를 동경했다”며 “운동에 대한 집중력이 남달랐던 황 선수를 보고 배우려 노력한 것이 크게 도움됐다”고 설명했다.

라이벌로는 후배 김이용 선수를 꼽으며 “1988년 로테르담 마라톤에서 2시간7분44초를 기록했는데, 김 선수는 다음 해 열린 같은 대회에서 딱 5초 늦게 들어갔다”며 “그가 있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페이스를 지켜 왔다. 라이벌 관계는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고 파악했다.

이마라토너는 국제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던 중 늦은 시각 몰래 나가 놀다 스승인 오인환 감독에게 크게 혼났던 일화도 들려줬다.

오 감독에 대해 “지나 보니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라며 “영동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길잡이 역할을 해준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소회했다.

끝으로 “이들 덕에 나의 마라톤은 외롭지 않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며 “주위에 든든한 페이스메이커를 늘 곁에 뒀어 어려운 길도 잘 헤쳐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영광경찰, 전남첫 수색용 열화상카메라 도입

영광경찰서가 전남 지역 최초로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첨단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2일 흥농파출소에서 한빛원자력본부, 흥농읍방영회, 영광군방범연합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색용 열화상 카메라’ 전달식을 가졌다.

해당 장비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서 중 처음으로 배치된 첨단 기기로,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육안 확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체의 열을 감지해 실종자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김종신 경찰서장은 “첨단 장비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시너지를 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동신대, 인공지능혁신대상 ‘종합대상’

동신대학교가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 혁신 모델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위원회와 국제미래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이 상은 기술 발전을 넘어 인간 중심의 AI 혁신과 책임 있는 활용을 통해 ‘K-AI 휴머니즘’ 실현을 지향한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국회 체험관에서 열렸다.

동신대는 교육혁신원 산하 AI융합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교육의 기획부터 성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사적인 AI 교육 혁신을 이룬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앞으로도 AI 기반 교육 체계를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인재 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광주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심장재부팅’팀 대상

광주시는 지난 12일 송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시민의 생명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광주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세계건강생활진흥연맹이 주관한 이 대회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광주 지역 초등학교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24개팀(96명)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심정지 발생을 주제로 상황극을 준비해 선보였으며 상황극에서 표현한 가슴압박,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응급처치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됐다.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은 훈련 중 심정지가 발생한 장병을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응급처치로 구조한 상황을 재현한 ‘심장재부팅’팀(대학생 박정민·류원형·송민준씨)이 차지했다.

최우수상(광주시장상)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AED’팀(문대환·박예찬·정민체씨)과 ‘코드블루’팀(나형민·권순우·설윤상씨),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골드타임 3인방’팀(이정아·이양순·김미정씨) 등 3개 팀이 각각 수상했다. /변은진기자



전남자치경찰청, 이상동기 범죄 예방 강화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2026년 제1차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 치안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전남자치경찰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사무국장과 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공동회의장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 관계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6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등 치안인프라 구축, 10개 국어

로 치안·재난·생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안전전남 앱 활성화 등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추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에서 증가하는 고령자·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방안과 노인보호구역·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등 다각적인 교통 정책 협력이 이뤄졌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경제계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방안이 기관 간 실질적 협업을 연결해 한걸음 더 진전된 도민 안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조영탁 하늘팍 대표, 무안 소년원 돼지고기 후원

조영탁 하늘팍 대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무안군은 “최근 조영탁 대표가 일로읍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소년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위한 돼지고기를 후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대표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지역 아동들을 위해 돼지고기 기탁은 물론, 저소득층 학생 학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



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오랜 기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후원해 온 조영탁 대표와 하늘팍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강진 다산베아채 ‘다문화가정 사랑의 나눔 행사’

강진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는 “최근 강진군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30여명에게 장난감을 선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됐으며, 다산베아채 임직원과 조미아 강진군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한 아이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홍길 다산베아채 사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따



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는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의 대표적인 상생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정영록기자



전남축구협회, 다문화 우수선수에게 장학금

전남축구협회가 지역 다문화 우수선수들에게 7년 연속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남축구협회는 최근 강진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도내 다문화 우수선수 20명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해 장학금을 받은 이들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뛰어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강진청자FC U-18 박재만(강진 성전고 1년)을 비롯해 초등부 4명, 중등부 7명, 고등부 8명, 대학부 1명 등이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선수들을 비롯한 전남의 유망주들이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부음**
- ▲신권희씨 별세, 신해군·연우·민경·수경씨 부친상, 소영순씨 시부상, 장동기·전재일·박인철(금호건설 대표협력담당 상무)씨 장인상=발인 14일(목) 오후 2시 해남군 국제장례식장 본관 1호(061-536-4494).
 - ▲서대우씨 별세, 배현숙(광주시의회 의정담당 관씨) 시모상=발인 15일(금) 오전 7시 전북 새고창장례식장 3호실(063-563-1001).